

인공위성 특집을 내면서



최 순 달

(과기대 인공위성연구센터소장)

1957년 소련에서 Sputnik 위성의 발사로 우주진출이 시도된 이래로 현재까지 약 4,000개 정도의 위성이 발사되어 통신, 방송, 기상예보, 자원탐사, 우주환경시험, 태양계탐사, 군사, 첩보, 이동 물체의 위치 확인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관련 산업의 성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주는 인류의 새로운 활동 무대인 동시에 우주분야 선진기술국들의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과 같은 대형과제는 많은 인력, 많은 경비,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투자에 상응하는 실리를 얻는데 대한 위험부담이 매우 크므로 일반적으로 국가 주도로 수행하는 것이 우주기술 보유국의 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89년 체신부가 통신 방송 위성 사업을 주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의결하여 1996년까지 국제기구로 부터 지정받은 단독 정지 궤도에 통신방송위성을 제작, 발사,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관련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처는 1989년 10월에 항공우주연구소를 설립하여 위성발사체와 과학위성의 연구에 착수하였고 1990년 과학기술대학에서는 이 분야의 인력양성과 기초기술 개발을 위해 인공위성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체신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개시되었고 상공부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산업체의 참여유도와 산업기술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1990년대는 국내에서의 우주관련 분야의 연구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주분야 선진국들이 30~40여년간의 기술 축적을 이루어 온 것을 고려하면 우주분야의 기술의 벽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되며 우주분야의 기술 축적은 상당히 오랜 시일 동안 범국가적으로 학·연·산의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시기에 대한전기학회에서 인공위성특집을 발행하게 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것이며 이 특집이 인공위성관련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여러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써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1990년 5월